

## 하나님의 뜻 바로 알기: 성령 충만

성경말씀: 엡5:15-21

### 도입

참으로 분주한 세대, 신호등 녹색으로 바뀌었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곧장 빵빵 소리가 들린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급속도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된다.

도덕과 윤리의 타락: 인터넷과 대중 매체, 영의 고통

아담의 타락 이후로 저주의 법칙이 시작되어 모든 것은 타락과 쇠퇴의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낯선 자로 순례자로 살아간다(벧전1:1,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가?

5:17,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혜 없는 자가 된다. 바보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 가능하니까 이해하라고 하신다.

질문: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싶은가? (꿈, 환상, 예언, 기도…), 불안과 초조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매 순간을 살기 원하는가?

지난 주: 가장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번 주: 그 다음으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다(5:18).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극도로 바쁘고 타락한 세상에서 낯선 자로 사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

### 배경

15절,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

그런즉: 7-14절 말씀: 과거에는 어둠에 속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 우리는 빛을 받았다.

조심스럽게 걸으라: 사방을 둘러보고, 세상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펴보며 걸으라.

16절: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이 세상은 마귀의 손 안에 들어 있다. 그러므로 노력을 기울여 시간을 찾아야 한다.

하루에 10분, 20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어렵다. 다른 것을 희생하면서 시간을 찾아야 한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을 수 없다. ★★★

특히 학생들, 젊은 아이들, 사무엘기상하, 열왕기상하를 읽으라.

날들이 악하다: 주님의 경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마음속에서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인간 복제). 불법이 성행한다(동성애의 합법화).

17절: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18절: 그 뜻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람 안에 완전한 인격체로 들어오신다: 성령 침례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롬8:9).

우리는 성령님의 전이다(고전6:19).

그러므로 구원 받은 이후에 “성령님을 달라.”고 구하면 안 된다.

성령님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

행1:8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의 권능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다.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이너마이트의 잠재력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분출시키는 사람이 있고 가지고만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이다.

구원받기 전의 사람은 속이 빈 장갑과 같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지낸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장갑에게 ‘마이크를 잡아라’하고 말하면 장갑이 마이크를 잡을까?

사람의 손이 들어가면 마이크를 잡을 수 있다.

장갑은 사람의 손이 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된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곧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내 뜻을 내어놓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걷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매사에 내가 성령님의 뜻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

###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 1.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를 만든다.

교회나 사회생활을 노래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가슴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늘 나와야 한다. 수직적인 찬양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골3:16).

수직적인 찬양이 이루어지면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찬양이 이루어진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시간이 즐거운가? ★★★

역사의 기록: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시작부터 모이면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시편을 낭송하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영적인 노래(즉흥적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를 불렀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로 아름답게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노래 거리가 많다. 부흥의 기간에는 찬송이 넘쳐 났다: 마르틴 루터, 찰스 웨슬리  
(6,000곡), 19세기의 무디와 생키의 사역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한 음악이 넘쳐나기를 기대한다.

작은 오케스트라, 성악가, 모든 성도들의 회중 찬양, 특별 찬송

행16:25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도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찬송가는 노래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이다. 많이 부르자.

#### 2. 모든 일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감사로 표현된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살전5:18).

현대 사회는 부가 넘친다. 그럼에도 없는 것을 가지려고 불평을 한다. 상대적인 빈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 롬1:21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고백: 빌4:11-13

#### 3.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최종 결과

예수님이 가장 모범이 되신다. 하나님이셨으나 가난한 자로 말구유에 오셔서 빈곤하게 사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가장 비참한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모욕을 견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섬기러 오셨다(마20:28).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고 거만하고 약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성령 충만과는 정반대이다.

서로에게 복종하는 동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벧전5:5).

마귀의 죄, 인간의 죄, 지금도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의 죄; 교만

내적인 찬양은 감사로 이어지고 서로를 섬기는 것으로 표출된다.

남편과 아내(22-33), 부모와 자식(6:1-4), 주인과 종(6:5-9)

### 결론

구원과 더불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다.

1. 명령이다(권유나 선택 사항이 아니다).

2. 구원받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다.

3. 수동적인 명령이다. 우리 스스로 하고 싶다고 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그분에게 우리를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채우신다.

4. 현재형 명령이다: 계속해서 충만하고 충만해야 한다.

날들이 악하므로 더욱 더 성령 충만해야 한다. ★★★